



“모두를 위한 예술날개”

2019년도부터 시작한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은
장애-비장애를 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2013년도)제정 이후,
지역 장애문화예술인 대상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고자 하는
광주의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4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여
예술날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 해당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책자의 모든 내용을
'보이스아이코드(VoiceEye Code)'로 담아 정보 접근의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보이스아이코드'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해 인쇄물 내용을
음성·번역해주는 2차원 바코드 서비스로 모든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 스마트폰 어플 '폰마킹' 다운로드 ➔ 코드스캔 ➔ 음성·번역

예술날개



2019 지역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술 날개



장애인, 예술, 광주, 광주문화재단 곽규호(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6
어쩌면 우리의 시각 박수현(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대리)	8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이승주(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매니저)	12
장애예술창작 활동과 지역사회의 역할 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18
장애인들에게 춤 출 권리를 최영목(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 대표)	24
커뮤니티 예술의 가치 NASA Park(박관우) (장애인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작가)	30
문화의 수혜자를 넘어 창조자로 김용목(극단 그레도 대표)	36
음악은 행복을 신고 해와달밴드	42

하늘·빛·구름 이야기 양경모 작가	48
강상수의 음악 이야기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	52
배리어프리 낭독극 소리드라마극장 '무지개 너머' 연출 : 양정인 출연 : 추말숙, 양정인, 신희홍	56
감각으로 소통하기 '몸의 대화' 연출 : 신희홍 출연 : 강상수, 김옥, 신희홍, 노옥정, 박수영, 전채희, 김미영	60
보이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예술날개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	62
삶은 예술이야 김옥진 작가	64
노래의 날개위에 공연자 : 김제선, 배진아	70
배리어프리 전시	72

위송(We Song) 밴드	78
재즈 피아니스트 강상수	82
하늘·빛·구름 양경모작가	84
해와달밴드 '나의 하루'	86
유쾌한 연극 극단 단비	90
감동의 하모니 초특급 아이즐 합창단	96



모두를 위한 예술은 차별이 없는 예술정책 혹은
예술창작(행위)과 지원의 의미를 갖는다

곽규호(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우리는 꿈꾸고 있다.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최영목(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 대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것

박수현(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대리)

장애예술인을 단순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창조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이승주(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매니저)

‘덜’하고 ‘모자란’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지역사회에서 장애예술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가장 하찮은 것도 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표현해주느냐에 따라 의미를 가진다

NASA Park(박관우)

오로지 반복, 반복하고 현장에서
직접 몸에 익히는 법 밖에 없었다

헤와달밴드



‘이야기로 만나는 예술날개’는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전문가)를
인터뷰하거나 원고로 기록을 남긴 결과물이다.

장애인, 예술, 광주, 광주문화재단

곽규호(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STORY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술의 가치, 의미,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을 새삼스럽게 다시 하게 됐다.

순수하게 예술 그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술이 예술 이외의 다른 모든 것과 관계 맺음 없이 홀로 존재할 수만은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예술은 나와 세상, 나와 타자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알아가게 하는 것, 나를 깨어나게 하여 나를 나 아닌 것과 구별하게 하되 서로를 주체로 인정하게 하는 것. 필자가 생각하는 예술의 기능이다. 이같은 생각을 확장하면 예술은 물론이고 인문학, 문화다양성, 인권, 문화예술교육 등 모든 영역의 최종적 목적이 인간에 대한 탐구, 인권의 가치 등을 깨닫게하고 가르치게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장애인예술, 장애인을 위한 예술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광주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예술을 더 많이 향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그 마지막 프로젝트가 '4월 예술날개'였다. 당초 2월에 진행하려던, 일종의 장애인문화예술 네트워킹 페스티벌 형태가 코로나19로 인해 다 바뀌었다. 2020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기해 광주CMB에서 광주 지역 장애예술인의 활동, 혹은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협업 사례 등을 다양한 작품과 함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일주일간 전파했다.

'4월 예술날개'를 기획한 이들이 가장 공감하고 생각하게 했던 말이 '모두를 위한 예술'이었다.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없이 '예술인'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같이 섰고, '모두를 위한 예술'



이음갤러리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예술날개 창작워크숍'(2020년 4월 진행)

이라는 대동 정신으로 장애예술을 이해하고 머리를 맞댔다. '모두를 위한 예술'은 차별이 없는 예술정책 혹은 예술창작(행위)과 지원의 의미를 갖는다.

사실 장애인문화예술정책에 관한 한 광주의 현실은 아직 초보적이다. 인권도시라는 위상에 비해 장애예술인 지원은 부족하다. 장애인문화예술지원조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하다. 세계적인 문화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은 장애인 친화도 측면에서는 낙제점에 가깝다. 광주문화재단 또한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전시공간 이음갤러리 (2019년 10월 31일 오픈)

그간 장애인 예술 지원에 소홀했고,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이 특별히 나은 것도 아니다. 광주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다시 예술의 가치와 역할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술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다. 삶을 향해 던지는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예술의 사명이라면, 인권도시 문화도시 광주의 광주문화재단 역시 이 길에 예외일 수 없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과 '4월 예술날개'가 그 한 축이 되길 바란다.

어쩌면 우리의 시각

박수현(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대리)



장애인 문화예술공간 이음갤러리 오픈식(2019년 10월)

광주에서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들 하나같은 반응이었다. “드디어 광주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지역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이 절실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지원과 장애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광주 등록장애인 수는 약 70,000여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광주에서 첫발걸음이 되는 이번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를 의료적 모델로 바라보던 시각이 차츰 사회적 모델로 변화함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태조사 진행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시각 속,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의사소통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어려워하는 편견을 갖는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의 사회적 모델이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을 마주하고, 대하는 이러한 편견들이 결국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사회(환경)적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포용적 예술’에 대한 정의는 단체, 국가별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해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으로 다소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활동을 뜻한다. 여기서도 우리의 시각은 중요하다. 즉, 편견에서 벗어나 ‘포용적 예술’에 입각해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만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장애인-비장애인 간 우위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협업이 가능하게 된다.





자문위원 운영



영국 선진사례조사 (2019년 9월)

보다 넓은 시각을 갖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해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영국은 우리나라(2007년 제정)보다 12년 앞선 지난 199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2010년 개정 평등법을 근거로 장애인 평등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재차 강조한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태도이다. 장애인들을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하고, 장애인-비장애인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신체적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발판삼아 지자체에서도 복지 차원에서의 장애인정책기본계획에서만 장애인 문화예술을 다룰 것이 아니라, 시혜적 측면의 문화향수를 넘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사회'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융성' 측면에서 장애예술의 창작과 확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혹시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세간의 평가로 인해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면, 이것 또한 어찌면 우리의 일그러진 시각이 아닐까.

2020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현황 :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이승주(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매니저)

들어가며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07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내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리모델링한 시각예술 분야의 장애예술인 레지던시이다. 원래 명칭은 <서울 장애인 미술창작 스튜디오>였으나, '장애인'을 전면에서 내세운 명칭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잠실창작스튜디오>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명칭 변경은 장애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함의하고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 현황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지상 1층, 면적 567㎡ 규모의 공간이다. 개별 작업공간 12실과 다목적 전시장, 휴게실, 공동작업장 그리고 운영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예산은 총 10억 4천만 원이다. 주요 사업은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과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본 사업의 예산은 잠실창작스튜디오의 공간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비와 사업비로 나뉘어져 있다. 주요 사업은 입주작가 인큐베이팅 사업인 <굿모닝 스튜디오>로, 매년 1회 입주작가 공모를 통해 12명의 작가를 선발하여, 1년간 입주실을 제공하며, 작가들은 다양한 워크숍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후 연말 기획전시를 개최하게 된다.

워크숍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창작자들과 협업하여 작가들이 관성적으로 갖고 있는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접점을 마련하고, 관점의 확장을 모색하려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주목할 점은 입주작가 대상 비평집 제작이다. 2018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평이나 평론 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은 0.7%에 불과하다.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는 현재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비평가, 큐레이터 등과 잠실 입주작가를 1:1로 매칭하여 수개월에 걸친 심도 있는 인터뷰를 거쳐 작가론과 작품에 대한 비평집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는 작가 뿐 아니라 비평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도 장애예술에 대해 고민하고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전시는 10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전시기획 자체에 장애인지 감수성과 배리어프리 요소를 적용하여 전시 관람객에게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해 깊이 고민하고 통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해당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년차를 맞이했다.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 뿐 아니라 문학 창작집 발간도 지원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매년 지원금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평균 지원금이 대폭 상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3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지원 예산¹

연도	분야							선정(건)	지원결정총액 (단위 : 원)	평균지원액 (단위 : 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2018	2	3	2	1	0	8	4	20	165,500,000	8,275,000
2019	1	2	3	2	2	8	5	23	184,990,000	8,043,043
2020	2	1	5	2	0	10	5	25	240,000,000	9,600,000
	5	6	10	5	2	26	14	68	590,490,000	8,683,676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

본 사업은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크게 장애예술을 둘러싼 담론 확장을 위한 포럼 개최, 장애/비장애 예술인 간의 공동창작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작년 서울형 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같이 잇는 가치>라는 사업명은 작년 5월에 개최한 ‘장애-비장애 동행을 위한 문화예술 포럼’의 제목이었다. 당시 포럼은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당사자, 활동가를 중심으로 당사자성을 반영한 행사로 호평을 받았다.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8), 『2018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99쪽



올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가와 기획자, 매개자를 대상으로 소위 ‘장애 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럼을 기획 중에 있다. 각자 창작과 일상의 영역에서 물리적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소개하고,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어떤 지점의 고민이 있는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이 있을지 논하는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2019년 진행한 공동창작워크숍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각예술 분야 창작공간의 입주작가들의 협업 사업이었다. 여기에 참여한 창작공간은 금천예술공장(미디어)과 신당창작아

카이드(공예)였다. 올해는 서울무용센터(무용)도 함께 참여하여 예술가 간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를 과정중심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나가며

장애예술을 논할 때 비장애인으로서 운영진이 갖는 본질적인 고민과 조심스러움이 있다. 이는 잠실창작스튜디오 뿐 아니라 장애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지점일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2020년의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사업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에이블 아트(Able Art)로서의 장애예술과 이를 넘어서는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로 나아가는 흐름 속에서 기존의 관성과 새로운 시도 사이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숙제가 많아 보인다.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장르 간 문턱을 낮추고, 결과는 물론이고 과정 또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장애예술 지원제도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모색할 단계가 왔다고 느낀다.

다만, 장애예술의 지원은 방법론적인 개선 뿐 아니라 근본적

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제정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²⁾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혹은 ‘장애예술단체’의 정의에서부터 의학/복지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해서 어떤 지향성을 갖고 지원사업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논의를 포함한다. 장애예술인을 단순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창조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을 운영하고 들여다보며 느끼는 아쉬움은 국내에는 아직 이런 관점으로 장애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참여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예술을 매개하는 진정성 있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전국구로 총횡무진하고 있는 현실이다.(혹은 이미 많이 있으나,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 예술인이 당사자로서 기획자로 성장할 기회도 많지 않다.

앞으로 의지가 있는 여러 기관과 문화재단에서 이렇듯 섬세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시도되고 소개되기를 바란다. 어떤 단기적인 결과만 놓고 평가하기 보다는 관점과 고민이 ‘포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문화예술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2. 2020년 3월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가 지정된 곳은 총 74곳에 달하며, 입법예고 중인 곳은 8곳에 달한다.(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장애예술창작 활동과 지역사회의 역할

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STORY



대한민국 인권사에 쓰인 발달장애인 작가 김현우 작품

들어가며

장애예술과 창작이 활성화되는 것은 현재 근대사회에서 탈근대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배치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에는 배제되고 소외되었으며, 사회에서 시설 등에 수용되어 격리되고 통제되며 타자로 객체화되었던 장애인들이 스스로 주체성을 형성하며 창의성과 예술창작을 매개로 사회에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장애예술 창작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는 68혁명과 민권/인권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장애예술 창작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에서 장애예술이 발전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 인권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독일/이탈리아/일본 모두 68혁명 이후의 신사회 운동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예술 창작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물질적 기반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문화와 철학과 역사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행위자들이 기존의 관습과 행위성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새로운 제도와 지식이 정착되기 어렵다. 이는 물질성의 발전과 문화적 태도의 간극이 발생하는 것으로 문화지체 현상이다.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면상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예술 창작이라는 새로운 정책과 실천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참여자들이 복지적 태도/ 특수교육적 태도나 혹은 비장애 중심적 예술 태도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실천으로 자리매김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장애인 복지/특수교육에서 장애인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했던 방식을 극복해야 하며, 또 한편에서는 비장애 예술영역에서의 비장애 예술가 중심적 창작 방식에 대해 성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장애예술을 ‘창의성/다양성’의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장애인/비장애인이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등 사회 포용(social inclusion)적인 장애예술 모델을 수립해야한다. 장애예술을 하나의 고유하고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인식하여 장애예술에서 드러나는 ‘다름’은 차별이나 배제의 근거가 아니라,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사회에서 역할하게 되는 핵심적 정체성이며 또한 이는 사회의 ‘다양성’의 핵심적인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예술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기반 마련(장애예술 특성화, 공간 확충 등) 및 자기주도적 역량강화의 기회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창의성과 포용성 기반의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인들이 중심이 되는 자기주도적인 방식으로 역량강화를 하고, 장애예술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

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예술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장애예술의 특성이 포용되는 것을 강조하는 특성화 전략의 지원방식이다.

장애예술이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장애예술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장르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공연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기존의 장애인 정책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모델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치료적 패러다임 속에서 장애인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사회 서비스들이 실시되었다. 이후 장애인 인권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모델이 확산되어갔다. 이는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정권을 갖게 되는 모델이다. 이와 변별되는 것이 문화적 모델/창의적 모델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문화예술 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화적 모델/창의적 모델이 활성화되면서 장애예술의 활동공간도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예술을 독자적인 장르로 인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에이블 아트란 방식으로 장애예술이 활성화되어 있고, 영국에는 ‘Disability Art’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은 특히 런던올림픽 당시 문화올림픽 개최를 하며 장애예술을 별도의 행사로

이야기로 만나는 예술단체



이탈리아 카르피의 장애인 나자레노 협동조합의 공방



일본 나라 지방의 장애인 예술센터

강조했다. 장애예술은 전세계적으로 Accessible Art, VSA, 에이블 아트등으로 불리며 활성화되고 있다.

알랜 서덜랜드라는 장애 예술가는 “장애예술은 창의적인 작품으로 단순히 치료의 과정이 아니며 장애인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드는 여가활동도 아니다. 장애예술은 장애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인 <레인맨> <리차드 3세> 이나 혹은 장애인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은 장애예술이 아니다. 장애예술에서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 장애인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장애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문제를 제기한다.” (Sutherland, 1997)라고 말한바 있다.

장애예술에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 소위 정상인보다 ‘덜’하고 ‘모자란’ 게 아니라 ‘다름’뿐이다. 이들은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주체로, 이들의 ‘다른’ 경험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차이에 대한 소통을 행하는 예술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결국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장애인의 차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장애예술은 단순히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의 확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름을 경험하게 하는 특성화된 예술 표현이다. 장애예술을 다양성 예술 분야의 하나로 특성화된 콘텐츠로 인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의 경험이 단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장애의 경험이 인간 경험의 보편적 현상이란 것을 환기시

키는 것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예술을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개성있는 예술 표현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예술의 창작

현재 한국의 장애예술계에서는 10여년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창작 기반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체계에서는 지속적이거나 장기적인 활동을 도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지원이 일 년 단위로 구성되고 있기에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어렵다. 장애예술인들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이것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금과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나 철학적 기반이 다소 불분명하여 일종의 문화지체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예술 창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중심적이거나 특수교육중심적 혹은 비장애인 예술중심적 방식과는 다른 창작의 기반과 역량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세분화되고 개별적인 방식을 넘어서 장애예술 전체에 대한 총체적 시각과 철학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창작에 대하여 보다 질적인 도약과 다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예술이 양적으로는 팽창되었지만 수월성이나 특성

화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장애예술이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장애예술 창작의 고유성과 특성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기성의 주체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청년 장애예술인 등 새로운 장애예술/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의 지원체계 내에서는 발달장애인, 청년 장애예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었던 지원과 활동이 질적으로 도약이 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예술/창작에 특화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발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다소 폐쇄된 방식으로 동시대 예술과의 접촉이 부족한 채 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동시대 예술과의 점점 모색 및 사회와의 조우를 통해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지역에서의 활동은 증가하고 관심도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 장애예술 활동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거점 공간 확보를 통해 장애예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장애인 창작의 물적 기반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철학 등의 준비는 다소 미비하다. 장애인 예술창작 활동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

그램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마음껏 예술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차별로 인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 소규모 작업실을 운영할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이를 반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예술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애예술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분야에서 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센터,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다. 지역문화재단과 같이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아카데미 시행 등에 있어서 위의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지역의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실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거점 단체 육성이 필요하다.

복지관, 특수학교,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전달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특수학교 졸업이후와 문화예술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졸업 이후의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질화해야 한다. 특수학교,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관련 기

관과 긴밀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재단 등과 연계할 필요. 실질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 문화재단 차원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활예술 활동의 활성화

장애인 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예술인 뿐만 아니라, 생활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이런 차별적 혐오 표현을 감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예술로 어울려 사는 다양한 예술 활동, 공동체 예술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울리고 상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시급하다. 마을예술사업, 공동체 예술사업과 적극적으로 협업모색하여 사례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 역할의 개발

장애예술인이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예술인들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예술인들의 자생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예술 관련 직업개발, 커리어교육,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관련 기획 및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예술에 대한 대중적 인식제고를 위해 장애인 예술 관련 충서를 기획하여 보급해야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 한층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 가치 확산이 예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예술 창작공간

지역사회에서 장애예술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있어야 한다. 공간은 개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네트워킹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최근 공간들이 다목적 전시, 공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카페 공간도 아카이브 자료의 열람, 소규모 공연 및 낭독회, 아트샵 등을 한 공간에서 같이 구현할 수 있다. 밀도 높은 공간 활용을 위하여 한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장애인들에게 춤 출 권리를

최영목(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 대표)

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은 춤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지 않는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되어 '제1회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2016)' 개최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 B1, 7-3호) <http://lsf.kr/>

빛소리친구들의 춤 이야기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애인무용수강생 오디션이 있었다.

춤을 좋아하고 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장애인춤꾼들이 많이 참여했다.

춤이 좋아요! 음악 큐?

수줍고, 머뭇거림 없이 자신들이 습득한 몸 움직임들을 한다.

심사위원들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따라하고 자신들을 표현한다.

열심히 해서 꼭 무용가 될거예요...

난 발레의상 입고 춤 출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면 꼭 장애인전문무용에 술인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느 예술인부모들 보다 뒤지지 않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춤을 춘다는 것 무대에서 몸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여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봐 행여 상처를 입지나 않을까?' 하는 부모님들의 노심초사(勞心焦思) 했던 일들이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사회에 장애인 춤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후 적지 않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님들의 관심과 생각들이 변화 되어서 장애유형과 장애의 경증, 중증을 뛰어 넘어서 자녀들을 장애인전문무용가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

장애인들에게 춤 출 권리를 주자!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 끝자락 대구에서 진행하던 Fun 즉흥무용 프로그램을 마무리 할 무렵에 가셔야 장애인들에게 춤이란 무엇일까? 에 대한 의문점들이 풀려지기 시작했다.

'장애인들에게 춤 출 권리를 찾아 주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장애인들에게는 금기시 되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무용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어 보자는 마음을 먹고 철저히 준비했던 'Fun Fun Dance 프로젝트'의 유용함을 현장에서 증명해내는 순간이었다.

2008년도 여름 장애인무용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로 기억이 된다.

“나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움직이는 것을 좋아 합니다. 몸짓을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애라는 것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몸 움직이는 것을 마음껏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위험하다, 조심해라 하시면서 날 붙잡아 주시고 날 늘 도와주셨지만 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움직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몸 움직이는 연습과 비보이들이 하는 춤 동작 중 물구나무서는 것을 따라서 해 보곤 했습니다.”





장애인 춤판을 만들어보자는 (사)빛소리친구들 프로젝트 절반의 성공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어려운 첫 걸음!

과연 장애인 무용예술은 가능할 것일까?

‘Fun Dance 프로젝트와 Fun 페스티벌, Fun Dance 매개자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들을 토대로 장애인전문장애인 무용단을 (Fun & Arts Company) 창단했다.

춤 출 장소가 없었다. 무용연습실을 대여하는데 있어서 임대비용 및 편의시설들은 우리들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지하층, 3층,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연습실에 가려면 모든 무용수들이 비상 상태였다. 장애인무용수들을 업고, 휠체어를 들고, 소품을 챙겨서 나르는 일들은 연습의 고단함을 두 배나 더하게 했다. 간혹 시설이 좋은 연습

실을 만나면 휠체어바퀴에 마루(고무)바닥 상한다고 임대를 해주지 않았다.

성북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습장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 곳에 공연연습을 하기로 했다. 한 겨울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구르면서 연습 또 연습을 했다.

어느 날인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참 좋은 연습실, 저절로 춤이 될 것만 같은 연습실 바닥에 앉자있는 장애인무용수들에게 약속을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편하게 연습 할 수 있는 좋은 연습공간을 만들어 놓겠다고...

‘둥글게 둥글게’ 공연은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열악한 상황에서 만들어낸 공연이여 더 큰 기쁨이 있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연습실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서울시에서 무용연습실을 위주로 한 흥은예술창작센터를 만들어서 입주무용단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전문장애인무용공연단이라는 아주 색다른 특색을 가지고 입주 무용단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였다.

심사위원들이 빛소리친구들 (Fun & Arts Company) 전문 장애인무용공연단 면접을 하면서 평가를 하시길 ‘이 팀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없고, 국내에서 유일한 팀이고 무용작품에 대한 평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열심히 해 볼 수 있느냐는? 반신반의 하는 다짐성 질문을 하셨다.

제1기 흥은예술창작센터 입주무용단으로 연습실 및 창작공간을 반년동안 사용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전문장애인무용단으로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다.

제7회 부산국제무용제

개막식공연은 유니버설 발레단이 되었고, 공연은 전문장애인무용단 빛소리친구들 (Fun & Arts Company)에서 맡기로 했다. 천금과 같은 기회로 알고 우리들은 연습, 연습, 피나는 연습을 하였다.

제7회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식 공연에 앞서서 빛소리친구들 (Fun & Arts Company) 무용단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냐는 KBS 아나운서의 질문을 받고 보니 변변하게 우리를 소개할 만한 것이 없었다.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용을 한다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소개 할 것이 없었다.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무용수들을 격려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나 우리는 절대 삼류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는 유일한 팀이다. 이런 유일한 팀의 멋진 춤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확인시켜보자고 격려했다.



빛소리친구들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말한다.
'장애인들이 춤을 춰? 근데 무용공연 중엔 장애인은 어디 있어?'하고 두 번을 놀란다고 한다.

두 번은 놀람과 두 배의 감동은 우리 공연단의 특징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제7회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식 공연은 대박이 났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부산국제무용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분장실로 찾아서 격려와 감사의 말들을 전하면서 장애인무용단원들을 부산명예시민으로 추천하고 싶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해 7월 흥은예술창작센터 입주무용단들과 함께 공연을 하기로 했다. '하늘 빛 오렌지'라는 작품을 통해서 빛소리친구들은 장애인무용단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알렸다. 참가단체들 중에서 전문가와 시민들 설문조사에서 제일 좋은 평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빛소리친구들(Fun & Arts Company)무용단은 좋은 무용공연을 하는 전문무용단이지 장애인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무용관계자들이 혹평을 해주었다.

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은 예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편견대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문화적 권리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장애인들에게 춤 출 권리를 찾아주자"는 목적을 가지고 전문장애인무용공연단 "Fun & Arts Company"를 창단하여서 공연과 아울러 장애인들에게 "Fun Dance 시리즈 : Fun 한국무용, Fun 즉흥무용, Fun 현대무용"을 보급하고 있으며, 장애인무용의 현황과 미래, 장애인무용공연활성화방안 심포지엄을 통해서 장애인 춤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국제무용제 개최

2016년 동시대의 장애인 무용예술가와 공연예술가 간의 초국가적 협업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계인의 장애인 무용축제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orea International Accessible Dance Festival)를 기획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시아국가(대만,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미주를 넘어 중남미(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전 세계가 참여하는 장애인 무용축제를 만들었다.

우리의 축제는 단순한 무용공연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전,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 무용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였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 무용수, 무용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초청 안무가 워크숍 및 컨퍼런스를 진행하여 그들의 역량을 강화 시키고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경험과 장애인 무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를 통해 장애인 무용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다음과 같이 평을 했다.
"관객의 시선을 새롭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공연"
"공연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된 순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애인무용가들의 공연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장애를 가지고도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무용수들의 다양해지는 움직임과 표현력,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비장애인 안무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타깝게도 장애인 전문무용수를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장애인 무용수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들을 하며 무용단 활동

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 무용계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애인 무용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장애인 무용수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전문 무용수로서 공연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빛소리친구들은 장애인들이 무용수가 되기를 꿈꾸고, 꿈의 실현을 위해 전문 무용수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춤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꿈꾸고 있다.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춤추는 것을...

커뮤니티 예술의 가치

NASA Park(박관우) (장애인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작가)

NASA Park(박관우) 작가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큐브 작업을 통해 자유를 표현한다.

인터뷰_ 손선지 작가



NASA Park(박관우)는

“다양한 것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길 바란다. 그게 우리 사회 이든 예술이든 말이다.”

자신만의 확고한 의지와 생각을 품고 오랜 세월 작품을 만드는 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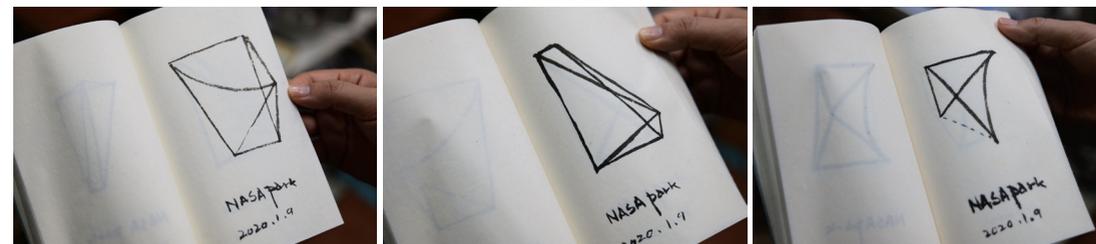
바로 커뮤니티 예술가 나사박(NASA PARK)작가이다.

작가는 하나의 작품에 다양한 생각이 깃들길 바라고 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내놓길 바라는 것이다.

작품의 주인은 작가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라는 NASA Park(박관우) 작가.

물론 각각의 작품을 만들 때마다 주제가 있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작가의 생각을 작품을 보는 사람에게 강요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림의 의미는 보는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10년 넘게 작업하고 있는 ‘큐브’ 시리즈이다.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큐브 속에서 작가는 자유를 얻는다. 자신이 내놓은 큐브가 원래 모습에 그치지 않고 관객의 머릿속이나 가슴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면 자유는 날개를 달게 된다.

예를 들어보면 큐브에는 8개의 꼭짓점이 있는데 그 꼭짓점을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결국 그 큐브는 작아 졌다 커졌다 만을 반복한다. 하지만 그 꼭짓점을 당기고 있을 때 누군가가 밀어주거나 누군가는 좀 더 작은 힘으로 잡아당긴다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큐브와 관객에게 영혼을 불어준 셈이다. 그리고 우리는 작품 속에서 다채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는 생각하고 각자의 의미를 들수록 또 다른 세계가 보인다고 말한다.

NASA Park(박관우) 작가는 작품 세계가 넓고 유연하다. 작품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장애를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작품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작가가 고민하고 있는 작품이나 주제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때 장애가 들어가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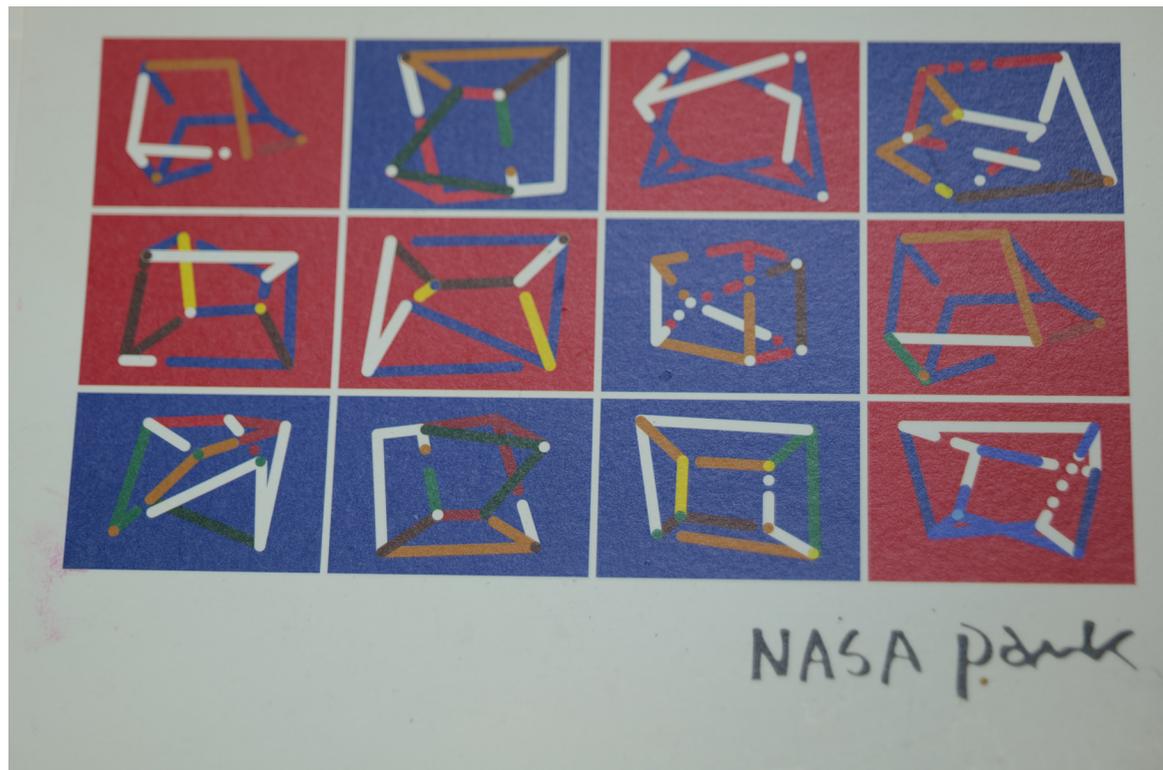
민주주의, 꽃이 피다

그는 남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한 번쯤 해볼 만한 이야기들을 작품에 담고자 한다. 실제로 NASA Park(박관우) 작가는 고물상을 자주 찾는다. 가치가 없어져 고물이 된 것들을 뒤져서 어떻게든 가치를 부여하고 뭘 만들지 늘 고민한다. 여기에서 NASA Park(박관우) 작가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사물에 대해 적어도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태도 말이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는 어느 유명시의 한 구절처럼 어느 것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고 의미를 찾아주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작가는 그런 시선이 우리 삶을 조화롭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도 마찬가지이다.

‘스톤 사피엔스’작가는 요즘 돌이 얼굴인 사람을 그리고 있다. 그 돌은 서로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고 우주 탄생과 함께 존재하지만, 작가는 그 돌중에서도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그 누구도 눈여겨 보지 않고 지나치는 돌에 의미를 담았다. 이것은 수석도 아니고 수석 같은 기품이 있지도 않다. 하지만 NASA Park 작가는 그 돌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흔하디흔한 돌이 작가의 상상력과 만나니 상당한 아우라를 풍기는 작품으로 변신했다.

이런 작품의 시도는 우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린다. 생각이 갇히지 않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갈등을 해결해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를 바란다.

가장 하찮은 것도 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표현해주느냐에 따라 의미를 가진다. 의미 없어 보이는 것도 어떻게 인정해주고, 만들어 가고, 지켜봐 주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또 다른 가치로 뻗어나간다.



예술, 날개를 달다!

NASA Park(박관우) 작가는 25년 동안 미술을 하면서 작업실만 40번 이상을 옮겨 다녔다.

“선생님 작업실을 그렇게 많이 옮기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해서죠.”

하긴 내 건물이 있든지 안정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을 터.

NASA Park(박관우) 작가는 그동안 지하 작업 공간을 얻어서 써왔다. 하지만 이곳은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흥건해 양동이로 수도 없이 퍼다 나르는 게 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품은 망가지고, 곰팡이가 피기 일쑤.

그러던 차에 그에게 기회가 왔다.

비가 오면 물이 찰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한 겨울에도 추위 걱정 없이 작품에만 몰두 할 수 있는 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바로 광주문화재단의 광주장애인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장애 예술인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어려움은 창작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작품의 세계를 넓히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무엇보다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많

은 장애 예술인들이 창작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NASA Park(박관우) 작가는 레지던시에 머물면서 수십 점의 작품을 만들었다.

“이 공간에 계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안정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추위나 경제적인 문제없이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는 레지던시 사업.

레지던시라 하면 창작을 하는 작가들의 공간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공간은 때로는 작품이 궁금하거나 작가가 궁금한 시민들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레지던시 공간을 구경하면서 작가와 소통하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 공간을 삶의 공간, 자신의 옆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공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옆에 있음으로써 서로의 삶의 가치를 공감해보는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다. 이것이 커뮤니티 예술이 아니겠는가.

문화의 수혜자를 넘어 창조자로

김용목(극단 그레도 대표)

극단 그레도는 광주 최초로 만들어진 장애인 극단. 지난 2012년에 재창단되어 올해 9년째 지역에서 다양한 연극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터뷰_손선지 작가



극단 그레도는

접속사 ‘그레도’. ‘그렇다 하더라도’라는 뜻으로 쓰인다. 여기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연극의 꿈을 키우는 극단이 있다. 바로 전국 최초이자 광주 최초로 만들어진 장애인 극단, <그레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약 15명이 함께하는 극단이다. 연극은 대단한 배우들만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당당히 무대에 올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애인들이라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고, 대본을 함께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무대에 서기까지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쉽지 않았지만 그레

도 행복하기 때문에 이들은 연극을 한다. 그 즐거움만큼 단원들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열정적이다. 그들은 휠체어를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절도 있는 몸동작을 보여주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물론 장애인 배우들이 언어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나 거동이 힘든 것은 자막 처리와 수화 통역 등으로 해결한다. 사실 표현이 힘든 장애인 배우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연극 관람의 의미는 충분하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뜨거운 박수로 감동을 전하게 된다.



'나와 다름'을 '나 다음'으로

평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실로암 사람들은 문학회, 음악공연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레도>는 실로암 사람들이 만든 극단이다. 이들은 우연한 기회에 연극을 보게 되면서 다른 문화예술활동보다 연극이 장애인에 대한 치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 극단을 만들게 됐다. 그리고 그들은 장애인들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다른 곳에서 보거나 이야기 하지 않은 장애인 당사자의 내밀한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장애인들은 늘 문화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단원들은 문화를 관람하는 입장에서 머물지 않고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일들을 하고 싶었다.

문화예술 수혜자를 넘어 창조자로, 예술인으로 성장을 꿈꾸며 말이다. 광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다. 민주, 인권, 평화 그리고 문화. 장애인들의 문화가 문화도시 광주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연극으로 보여주는 자신들의 문화가 광주의 한 축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그들이 연극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치유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풀어내기 어려운 장애인들. 또 삶의 무대에서 완벽한 주인공으로 서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주류에서 배제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 당당하게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치유의 힘이 있다.

몇 개월 간 전문 연극인과 함께 수십 번의 이론 교육, 연기 훈련, 공연 연습에 매진해야만 작품이 올라간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들은 성장하게 된다.

치유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홀로’와 ‘더불어’다. 홀로는 자립을 뜻한다. 자립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손을 잡고 더불어 사는 것이 치유하고 생각한다. 서툰 실력이지만 연극을 통해 자신감과 꿈을 키우고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단원들. 실제로 시설에서 살던 이들이 연극을 하면서 자립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연극 무대에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연기하는 시간. 그것은 치유의 과정이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래도 공연은 계속된다

공연이 끝나면 “내년 공연에 꼭 참여하고 싶다”, “저도 하고 싶어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관객들이 종종 있다. 관객들의 이런 반응은 단원들에게 힘이 된다. 우리들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관객에게도 통한 것이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극단 <그래도>.

끝없는 연습을 하다보면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이 보이고 무대 맛을 보면 자신감이나 자기표현이 한층 성장해 있다. 한 번 무대에 선 이들은 그 매력을 잊지 못해 연극을 꾸준히 하는 편이다.



“연극을 계속 하고 싶어요.”
 “왜요?”
 “왜냐면 우리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극단 그래도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이라든
 지 혹은 자립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다. 지금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은 삶이
 계속 되는 한 쪽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바람이 있다.

나아가서는 연극뿐만 아니라 전시, 퍼레이드, 토크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도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이런 공연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장애인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단체,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는 것이 중요
 하다.

극단 그래도 역시 수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장애인
 과 함께 하려는 비장애인들과 나름의 의미를 갖고 참여한 이들
 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한다.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가 잘 어우러진 연극을 보게
 되면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의 이웃으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
 한 중요한 고민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은 행복을 싣고

해와달밴드

해와달밴드는 2010년 결성됐다. 재즈와 어쿠스틱을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인터뷰_손선지 작가



김민국(퍼커션) 허 승(보컬) 주은아(건반) 윤준희(드럼)

해와달밴드는

밴드 결성 9년 만에 첫 번째 정규앨범을 낸 밴드가 있다. 바로 청년들의 삶을 노래하는 4인조 밴드 <해와달밴드>이다. 음악이 좋아 모인 멤버들이지만 밴드를 처음 시작할 때 그 흔한 밴드이름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밴드가 행사에 초청되었고 아무리 그래도 무대에서 이름이 없어야겠냐며 공연 전에 밥 먹으면서 정한 팀명 이란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었던가. 해와 달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밴드를 시작했을 때는 어떤 커다란 목표나 포부가 있었던 것

은 아니다. 그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 좋았을 뿐이다. 좋아하는 일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 무대에 섰을 때 멤버들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해와달밴드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밴드라는 걸 잘 모른다. 그래서 이들은 음악 하는 4인조 밴드, 장애가 보여지기 보다는 음악으로 먼저 들려지고 싶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사연을 알았을 때 장애를 가져도 이렇게 음악활동을 할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아차아프와 아아프아의 차이

해와달밴드의 첫 번째 정규앨범에 '아차아프'라는 곡이다. '아'메리카노 '차'갑게 '아'메리카노 '뜨'겁게의 준말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퍼커션 담당 김민국 씨의 사연을 담은 곡이다. 민국 씨는 손님이 주문을 할 때면 속으로 아차아프를 생각하는데 손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당황하게 된다. 보통은 아차와 아아가 뭐가 다르나 싶겠지만 민국 씨에게는 아차아프만이 기다리는 답이었다. 10년 전에 결성된 해와달밴드는 결성이 되고 무려 5년을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한다. 그 이유는 멤버들이 곡을 배워도 학습능력을 쌓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연습과정은 무

척이나 힘들었다.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산만한 발달장애의 특성상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하는 합주는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 오로지 반복, 반복하고 현장에서 직접 몸에 익히는 법 밖에 없었다. 밴드는 합주 연습을 매주 하고 각각 개인 레슨도 받는다. 전문 강사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이들은 조금은 실력을 키워나간다. 처음엔 곡 하나를 연습하는 데 반년이 걸렸다. 꾸준한 연습과 피나는 노력으로 곡을 완주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앨범 속 5곡을 합주하는 데 1년이 걸렸다. 해와달 밴드는 조금씩 성장했다.

밴드 활동을 통해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게 된 멤버들.

이들은 장애인들이 음악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음악 활동이 직업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음악에 도전하는 장애인이 많이 생길 테니까 말이다. 5년 전 해와달밴드의 첫 콘서트 때 이들에게 반해 관객에서 보컬멤버가 된 허승 씨처럼 말이다.

노래가 된 나의 하루

해와달밴드는 그들만의 분위기가 있다. 모든 예술가들처럼 말이다.

해와달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순수해지고 따뜻해진다.

조용필 노래도 해와달이 연주하면 해와달스럽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음악의 외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따스함, 정 같은 감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멤버들한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성,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마음껏 피아노도 치고 강아지도 키우고 싶었던 키보드 담당 주은아 씨. 실제로 그녀는 이사를 가고 싶어서 동네를 둘러보다가 어디선가 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보게 됐다. “8천만원에서 ‘만’만 빼면 8천원. 그럼 내 저금통을 털면 살 수 있겠다”는 다소 엉뚱하고 귀여운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일상이 노래로 만들어졌다. 바로 ‘우리집은 팔천원’.

해와달밴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한다.

음악이 이들의 언어가 된 것이다.

멤버들의 일상, 삶, 감정을 음악을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 싶어 한다.

조금 서툴고 더디지만 그들만의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해와달.

이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에 나아가고 있다.

10년의 음악 여정 속에서 중학생 아이들은 어엿한 어른이 됐다.

그 찬란한 여정은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행복했다.

음악을 자신의 언어 삼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멤버들.

집안에만, 복지관에만 있던 이들이 밴드 활동을 하면서 세상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해와달은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음으로 소통 하는 음악,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것이다.

해와달이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궁금한 분들은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해와달밴드’를 검색하면 된다.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보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즐거운 일입니다

양경모 작가

'사람'(人) 그 자체로 보여 좋다'

양정인 연출가

'낮설지만 틀린 것이 아닌' 다양한 시도들이 앞으로 지역에서 지속 진행되기를 바란다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

예술은 본디 그런 것이다. 마음을 만나는 일이고 마음과 마음이 넘나드는 것이다

김옥진 작가



‘찾아가는 창작워크숍 예술날개’는 장애, 비장애 예술가들이 진행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장애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4회 프로그램 현장을 글로 풀어담았다.

※ 해당 워크숍 영상은 광주문화재단 유튜브 ‘문화마실TV’에서 확인 가능.

기획_ 김주완, 신희흥, 양정인, 이순학 글_ 김현우(작가)
사진_ 이정훈(문화콘텐츠그룹 (주)있다) 모더레이터_ 김혜일, 이순학

하늘·빛·구름 이야기

양경모 작가

일 자 : '20. 04. 05.(일)
장 소 : 이음갤러리(광주 동구 중흥로 239)

양경모 작가는 고도근시로 인해 망막박리 등 시력이 좋지 않지만 '하늘, 빛, 구름' 등 작품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 광주문화재단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레지던스 작가로 활동.

코로나-19로 침체된 요즘 분위기 속, 가족들에게 예술을 통해 활기를 불어 넣어줄 <찾아가는 창작 워크숍, 예술날개>에 초대할게요.

첫 프로그램으로, 양경모 작가님과 함께 작품도 감상하고, 직접 작품도 만들어보고, 작가님의 작업공간도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양경모 작가님은 '빛'에 영감을 받아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빛'이라는 글자를 아름다운 곡선으로 표현하거나, 물감으로 빛을 머금은 구름을 그리는 등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큰 액자에 걸린 두 그림이 '바라봄'이라는 작품인데, 각각 사슴과 새 한 마리가 보이네요.



책상에 물감과 칫솔이 놓여있네요. 이를 닦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겠죠? 이번 시간에는 칫솔이 붓 역할을 할 거예요. 칫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흥미로운 발상이에요. 정해진 주제 없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리는 시간인 만큼 솜씨를 발휘해 봐요. 가장 열심히 그린 사람에게 양경모 작가님의 작품으로 만든 손거울을 얻을 수 있어요.

원하는 색깔의 물감을 짜서 칫솔모에 골고루 묻힌 후, 동그란 종이에 살살 문지르면, 점점 연해지는 몽환적인 배경이 만들어져요. 속삭속삭, 붓에서는 느끼지 못한 경쾌한 리듬에 맞춰 칫솔을 문지르다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배경이 똑딱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상상한 것을 붓으로 그려볼게요. 별, 꽃, 눈사람, 각자 상상한 게 다양하네요. 양경모 작가님의 말씀처럼 곡선이 돋보이는 글자도 그림으로 표현해요.

이번에는 칫솔로 배경을 칠하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면봉으로 주변을 꾸며볼게요. 면봉에 물감을 문혀 작은 점들을 콕 찍어요. 어느 한 곳을 기준으로 점점 모여들게 많은 점을 찍으면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양경모 작가님 작품처럼 빛을 머금은 많은 작품들이 탄생했네요. 이렇게 각자의 작품을 나열해 놓으니 전시회가 따로 없어요.



물감이 마르는 동안 양경모 작가님의 작업실을 구경해요. 작가님께서 특별히 예술날개 참여자들을 위해 공개하는 공간인 만큼 작가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요. 만들고 계신 작품들이 작업실 곳곳에 놓여있어요. 빛에 영감을 받은 작가님은 많은 구름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칫솔로 물감을 칠한 것처럼 영롱한 색깔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면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올해는 5·18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예요. 작가님도 그에 맞춰 주먹밥을 형상한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이 작품도 다음에 꼭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표현하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같아요. 양경모 작가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화가들과 다르지 않아요.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보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즐거운 일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 활동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예술날개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은 국

경을 넘는다는 것처럼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경모작가)

예술날개 활동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고, 마음을 나누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나요? 직접 만든 작품을 간직하면서 오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양경모 작가님의 활동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외쳐 봐요. “예술날개 파이팅!”

강상수의 음악 이야기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

일 자 : '20. 04. 06.(월)
장 소 : 이음갤러리(광주 동구 중흥로 239)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는 선천성 녹내장으로 8살 되던 해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재즈를 통해 삶의 애환을 표현하고 사람을 살리는 재즈를 연주하고 있다.

예술의 종류는 다양해요. 자신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음악으로, 몸짓으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감상하며,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악보가 없어도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시각장애 강상수 피아니스트는 보이지 않아도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연주하니 악보를 보여주며 어떻게 연주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상대방이 당황하는데, 우리는 보는 것에 익숙해서 첫인상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단정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누군가와 첫 만남에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죠?



어머니께서 밭에 나가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연주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선생님은 좀 더 예쁘고 아름답게 연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세트테이프가 늘어지도록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건반을 쳤다고 해요. 시골 생활을 떠올리며 작곡한 '그린 필드'라는 곡을,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자연을 상상하며 들어볼게요.

음악을 사랑한 선생님은 대학교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캠퍼스 배치를 외워서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일도 했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재즈 장르를 더 알고 싶어진 선생님은 자랑스럽게도 버클리 음대에 진학하게 됐어요. 재즈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재즈는 유색인종으로 차별받는 흑인 뮤지션들의 저항으로 표현된 음악이에요. 편견과 차별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음악이 아픔을 대변하는데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음악가로서의 가치관이 관객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음악을 연주하는 뮤지션이자 소수자로 정의된 사람들의 아픔을 전달하는 대표자로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저의 부족한 연주와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관객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힐링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저의 연주와 함께 호흡해주시는 관객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힘이 났고,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를 때 관객들과 한 마음이 된 것 같아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금방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힘내서 같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예술이에요. 거리를 나서면 어디선가 노래가 들리고, 자연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 들으면 마치 노래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무수히 많은 감정들을 표현할 때도 음악이 대신 해주곤 해요.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 속에 따뜻한 감성을 채우고, 감동이 있고, 연대 활동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됐나요? 강상수 피아니스트 엽서를 간직하면서 오늘 같은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순간을 기억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술, 우리 같이 예술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봐요.



배리어프리 낭독극 소리드라마극장 ‘무지개 너머’

연출 : 양정인 출연 : 추말숙, 양정인, 신희홍

일 자 : '20. 04. 06.(월)
장 소 : 이음갤러리(광주 동구 중흥로 239)

낭독극 ‘무지개 너머’ ‘예술날개’ 프로그램을 위해 제작한 배리어 프리 작품. 점자책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 낭독극은 동작 없이 출연자의 화술에 의해 진행되는 극예술.

우리의 일상이나 꾸며진 이야기를 시각과 청각을 통해 몸짓으로 표현하는 예술을 극이라고 해요. 다양한 연극이 공연되는 극장에 가 본 적이 있나요? 배우들의 표정, 몸짓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감정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해요.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때로는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을 주기도, 때로는 무서운 분위기의 소름 돋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극장에서 극을 ‘보는 것’이 어찌면 다른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리드라마극장은 모든 것을 소리로 표현하는 극장이예요. 사람의 목소리, 악기, 소리 교구를 통해 연기도 하고, 효과음을 만들 수도 있어요. 눈을 감고 극을 감상하면 보이지 않아도 소리에 집중해 상상으로 그리면서 이야기에 더 빠져들게 돼요. 이번 예술날개는 소리드라마극장을 청취하는 시간이에요. ‘오즈의 마법사’인 듯 ‘오즈의 마법사’ 아닌 ‘오즈의 마법사’ 같은 ‘무지개 너머’라는 작품을 감상해 봐요.



‘레디~ 액션!’ 슬레이트 소리가 나면, 본격적으로 연극을 시작해요. 양정인, 추말숙, 신희홍 3명의 배우가 1인 다역을 소화하며 연기를 이어나가요. 악기를 통해 잔잔한 배경음을 연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다양한 효과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각종 사물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 우리의 귀로 전달하면, 우리의 상상을 통해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해지죠.

배우들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똑부러지는 해설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극의 내용에 따라 마녀가 되어 카랑 카랑한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작고 귀여운 강아지 목소리를

낼 때도 있는데 진짜 강아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표정과 몸짓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일반 극과 달리 소리드라마극장은 배우들의 목소리 높낮이와 크기, 떨림 등을 통해 그 역할을 대신해요.

‘무지개 너머’ 작품에는 회오리바람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소리 교구를 통해 강력한 바람소리를 표현해요. 그리고 배우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더해지면 정말 회오리바람에 휩쓸린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져요. 이밖에도 타악기, 현악기 등 각종 악기 소리와 방울을 흔들거나 소리 교구를 부딪쳐 다양한 효과음을 만들어요.



이 작품에서 배우들은 정적으로 소리만을 가지고 연기하지 않아요.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무용을 하면서 관객들과 소통해요.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예술 장르가 포함된 거죠. 미술과 음악, 음악과 무용 등 예술장르간의 협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무지개 너머’ 작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나와 주인공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도 있어요.





이제 작품을 감상한 관객들이 직접 연기를 해볼 거예요. 각자 원하는 인물을 정하고, 선생님들의 지도에 맞춰 대사를 읽고, 지문대로 각종 효과음을 표현해요. 물론 노래도 불러보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춰보죠. 극 하나로 여러 가지 예술 장르를 만나볼 수 있으니 정말 신나는 시간이예요.

이렇게 감상도 해보고, 직접 연기도 해보면 '무지개 너머' 작품이 주는 의미가 마음속으로 더 잘 전달돼요. 주인공 도로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가요. 마법사가 같이 간 친구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 도로시의 차례가 돼요. 하지만 마법사는 이미 도로시가 알고 있다고 말해주죠. 여러분도 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이미 자라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본 작품이 어떻게 창작되었는지 양정인 연출님의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소리로 읽어주는 아름다운 공감

연출 : 양정인

찾아가는 창작워크숍 두 번째 날 첫 번째 문을 열게 된 소리드라마 극장 '무지개 너머', 사회자의 노련한 진행으로 함께 워크숍을 즐기러 온 참여자들은 집중했다. 그것을 뒤편에서 바라보며 각자 좋아하는 예술 장르와는 다른 것을 서로 시도했던 세 명의 예술가들은 어색한 무대가 되면 어쩔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애써 극 속에 나온 캐릭터의 표현 뒤에 숨기며 배리어프리공연의 첫발을 내딛었다.

워크숍 준비의 시작은 이랬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마냥 함께 예술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공감하고 수다 떨고 그중 가장 행복하게 했던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먹고 떠들 때 순식간에 이루어진 프로젝트였다.

사실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예술날개' 기획단으로 참여하며 가장 인상 깊은 만남 중 한 곳인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가까운 인근에서 예술 활동을 했음에도 이곳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들이 하는 활동들 속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 중 점자책을 열람하며 오즈의 마법사가 눈에 들어왔다. 눈으로 읽고 즐겼던 비장애인이 나에게 손끝으로 전하는 세계가 또 다른 감성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자리 잡았던 것이 마음 편히 마음을 나누던 시간에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다.

오즈의 마법사 하면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over the rainbow 라는 곡이었다. 무지개라는 색채감, 유쾌함, 아름다움, 희망이 담겨있는 메시지로 무지개 넘어 희망을 담아 각자 이루고 또한 내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이번 작업에 예술가들의 특성을 살려 무용, 연기, 연출이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일으키며 자신의 분야가 아닌 장르를 배우고 익히며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서로의 장르의 경계를 넘어 소리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소리로 다양한 표현을 해야하는 연습시간이 더욱 즐거웠는데 달리는 소리, 구두 소리는 리듬막대로, 관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소리효과였던 회오리바람은 레인스틱과 천둥소리, 병아리 몰 때와 양철나무 등장 할 때는 트로이 아고고 벨, 마녀등장에는 윈드차임, 실로폰을 사자와 허수아비 등장에는 핸드드럼과 봉고를 오즈가 등장 할 때는 징소리를 효과음으로 활용했다. 가장 독특한 소리는 햇빛소리를 연출 하는 것이었는데 휘슬을 요리조리 부르는 기술을 부리며 극의 재미를 더했다.

춤도 우쿠렐레도 어색했던 나에게 무대 앞에서 새로운 도전이었고 떨림의 순간이었다.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 관객들에게 다가갔을 때 반응들은 상상의 자유와 즐거움과 재미와 행복의 소리들을 내었다. 특히 실감나는 마녀의 웃음소리와 도로시가 over the rainbow 배경음에 맞춰 무용수들과 함께 추는 아름다운 춤사위는 극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번 기획단을 하면서 그리고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여러 장애예술가들의 만남이 있었고 귀한시간이었다. 그 중 한분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장애인을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만 보지만 예술을 하는 장애인은 장애가 보이지 않고 '사람(人) 그 자체로 보여 좋다.'우리는 예술로 배리어프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시작은 미비하고 아쉬운 점이 참으로 많지만 그래서 더 많은 작업을 공감하며 또 다른 아름다운 만남을 함께 하고 싶다.

감각으로 소통하기 '몸의 대화'

연출 : 신희흥 출연 : 강상수, 김 옥, 신희흥, 노옥정, 박수영, 전체희, 김미영

일 자 : '20. 04. 06.(월)
장 소 : 이음갤러리(광주 동구 중흥로 239)

해당 퍼포먼스는 시각장애인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와 무용수 5명이 선보인 공연. 특히, 공연의 섬세한 부분까지 설명하는 음성해설과 함께 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의 어린 시절과 재즈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감상했어요. 이번에는 눈을 감고 건반의 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음악을 감상해 볼게요.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들으며, 건반 연습을 열심히 하던 소년과 그의 연주 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신 어머니의 이야기, 서사를 접하고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관객도 있네요. 음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감동의 연주가 끝나면 관객들은 박수를 쳐요. 그의 연주가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 거예요.

강상수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연주가 끝나고, 신희흥 선생님의 해설에 맞춰 무용수들의 몸의 대화가 시작돼요.

'무용수 1. 무대에 입장한다. 그는 해설가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무용수이다.
해설가- 서서히 손가락이 움직인다. 팔꿈치도 움직이고, 등도 움직인다. 다리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 쿵쿵, 후다다, 공간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해설가- 2명의 무용수가 천천히 입장한다. 공간을 걷다가 서서히 멈춰 오른손을 눈에 가까이 댄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는다
해설가- 무용수가 눈을 감자 강상수의 '그린필드' 연주가 시작된다' (신희흥 음성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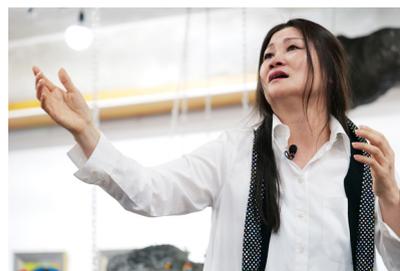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의 부드러운 연주가 더해져 음악과 무용이 하나가 돼요. 무용수들의 퍼포먼스는 우리 몸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몸짓이에요. 다양한 감각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껴봤어요.

이젠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가 무용수가 되어 공간여행을 떠나요. 의자에 잠시 머물러 엄마 생각도 해보고, 후리지아 꽃향기를 맡으며 상큼한 감각을 선물 해주기도 하죠. 이때 무용수들이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의 속마음을 몸짓으로 표현해줘요. 정말 신기했어요.

객석에 있는 관객을 무대로 초대했어요. 스카프로 눈을 가리고 무용수와 함께 공간을 걸으며 다양한 감각들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김옥 무용수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도 불렀어요. 마치 강상수의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춤으로, 목소리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무대를 즐겼어요.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의 후기를 만나보시죠



찾아가는 창작 워크숍 예술날개



보이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예술날개

재즈피아니스트_강상수

"다섯 명의 무용가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눈에 스카프를 착용한 관객이 무용가의 안내에 따라 걸어가고 있다."

4월 6일 월요일 저녁 6시경,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이음갤러리 실내에는 무용가이자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예술날개'의 전체 진행을 맡은 신희흥 감독님의 목소리가 나의 연주를 배경으로 울려 퍼졌다. 흡사 명상 시간이 연상될 것 같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 나를 비롯해 눈에 스카프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관객들, 스태프들 모두 숨 죽이고 퍼포먼스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20여 명이 함께 만든 그 날의 공연은 참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이 모두의 안에 남았다.

이는 가히 파격적인 시도라 할 만하다. 지인과 함께 공연장이나 극장을 갔을 때, 무대나 스크린의 상황을 궁금해하는 나와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는 지인은 앞사람 의자 등받이 깊숙이 머리를 파묻고 누가 들을까 열

정적인 속삭임을 주고받아야 했다. "뭐? 뭐라고?"를 열정적으로 속삭이다 보면 나도 그도 금세 녹초가 되는 것은 둘째 치고 공연이나 영화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도 힘에 부친다. 앞뒤 좌우에 앉은 누군가로부터 "거기 좀 조용히 합시다."라는 핀잔을 받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그 곳을 벗어났던 날이 많았다.

회의나 모임 자리에서 나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경력자 강상수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 준 좌중을 숙연하게 만들 만한 감사 코드를 꺼내 놓을 거라고 짐작했던 사람들은 할 말을 잃은 채 허둥해고 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즐겁다.

나는 선천성 녹내장으로 인해 왼쪽 눈에 담겨 있던 세상의 실루엣을 8살 되던 해에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어둠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사람들은 원하는 시내 버스를 멈춰 세워 승차하거나 버스 내 하차벨을 찾아 누를 수 없는 나, 어느 봄날 오후 불쑥 서점에 찾아가 원하는 책 한 권 뽑아 들고 후룩후룩 읽을 수 없는 나를 가리켜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른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리고 이번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술날개'도 장애 예술인의 창작 세계에 모두가 공감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내가 이 공연을 아름답다고 느낀 이유는 뭘까? 그 곳에 모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똑같은 공연을 즐겼기 때문이다. 무용가들이 아름다운 무용을 선보이는 동안 나는 피아노를 연주했고 내 옆에 앉은 나레이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무용가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묘사해 냈다. 무용을 마친 무용가들이 관객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안대를 씌워 주고 갤러리

안을 함께 걸으며 평소 잘 사용해 보지 않았던 감각들을 깨울 수 있도록 돕는 중에도 음악과 나레이션은 이어졌다.

장애는 열등하거나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다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함께 할 때 모두가 행복한, 예술날개가 그토록 날아오르고 싶어했던 멋진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낮설지만 틀린 것이 아닌' 다양한 시도들이 앞으로 지역에서 지속 진행되기를 바란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참신한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광주문화재단의 모든 분들께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인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삶은 예술이야

김옥진 작가

일 자 : '20. 04. 07.(화)
장 소 : 퇴움복지재단(광주 북구 중외길 5)

해당 워크숍은 제빵·제과 직업재활센터 퇴움복지재단 소속 직원(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 '삶은 예술이야' 주제로 머그컵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찾아가는 창작 워크숍 예술날개'가 맛있는 빵 냄새가 가득한 퇴움복지재단에 방문했어요. '퇴움복지재단'은 다양한 방향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예술날개'가 경계 없는 예술 활동을 바라는 것처럼 '퇴움'은 직업재활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있죠.

'퇴움 긴:생각'은 퇴움의 베이커리 브랜드예요. 맛있는 빵 냄새가 건물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있어요. 퇴움은 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해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이런 철학을 가진 '퇴움'에서 오늘은 어떤 '예술날개'를 펼쳐 볼까요?

여기는 퇴움복지재단 3층에 있는 '소통의 장'이에요. 테이블 위에 처음 보는 기계와 머그컵들이 놓여있네요. 이 머그컵으로 어떤 예술 활동을 할지 궁금해요. 흰 종이에 아기자기한 캘리그래피도 있어요. 이 작품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벚꽃이 한창 만개한 양산동에서 오신 '김옥진'작가님을 소개할게요. 작가님은 동네 이웃들과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은 미술관을 관람한 경험이 있나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에 가면, 왠지 작품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김옥진 작가님은 모든 사람이 미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쉬운' 그림을 그리신다고 해요. 특별한 사람만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러분도 이미 예술가예요.

오늘을 기억하며 두고두고 예술가로서의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머그컵에 작품을 새기는 작업을 해볼게요.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작품처럼 글씨를 새길 수도 있고, 원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굴곡진 머그컵에 내 작품을 새길 수 있으니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머그컵에 구워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림을 그릴 준비물이 필요해요. 종이와 색칠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오늘 사용할 색칠 도구는 머그컵에 굵기 위해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도구들이에요. 일반적인 색칠 도구를 사용하면 작품을 만들 수 없으니 꼭 준비한 도구들을 사용해주세요.



먼저 바탕이 되는 그림을 그려야겠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의 그림이 머그컵에는 반대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글씨를 쓰게 되면 거울처럼 머그컵에는 거꾸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투명한 종이에 먼저 그림을 그리고 뒤집어서 거꾸로 보이는 것을 다른 종이에 따라서 그려주면 돼요. 모두가 다양한 생각으로 그림과 글을 쓰고 있네요.

그림을 다 완성했다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작품을 머그컵에 구워줄 거예요. 기계가 뜨거우니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품이 나올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요.

짜잔! 여러분의 작품이 완성됐어요. 가족을 그린 작품도 있고, 자연을 그린 작품도 있네요. 다양한 생각이 모여 알록달록한 머그컵 작품들이 완성됐어요. '티움'에서 만든 빵이 머그컵 속에 쏙 들어가네요.

이제 예술가들의 작품 설명을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모두에게 소개해주세요.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집과 예쁜 꽃을 그렸어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파릇파릇한 들판을 그려봤어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해서 가족을 그렸어요.’

‘바다 속에 사는 올챙이랑 물고기랑 고래 친구들을 그렸어요.’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했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게 바로 예술 활동이에요.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게 예술 활동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해요, 싫어요 하시는데, 잠재된 예술을 깨우고 막상 작업을 하면,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가져가세요. 그럴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예술은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 상상의 힘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든 시기에 예술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하면서 장애와 비장애를 넘나드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김옥진 작가)



삶은 예술이다.

김옥진 작가

나는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림을 사용한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무엇을 그릴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다. 일상에서 하는 수많은 행위들에 예술적 감성과 표현이 담기기를 희망하며 예술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을 한다. 예술을 삶과 분리시켜 멀리 두고 감상하는데 머물지 않고 내 삶에 가깝게 예술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예술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예술이 나와 우리를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것이기를 바란다.

오늘은 빵을 만드는 특별한 예술가들을 만났다. 한 친구는 오자마자 준비된 하얀 도화지에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을 빼곡히 그린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유로운 영혼들과 오늘도 특별한 하루를 보낸다. 예술이 일상에서 나와 우리를 응원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한 '삶은 예술이야' 워크샵. 나에게 응원이 되는 말이나 힘이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컵에 전사시켜 일상에서 쓰여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오늘 워크샵에 목적이다.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빵을 만드는 작업장 '틱움'에서 진행된 '삶은 예술이다'는 삶에 소중한 것들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어떤이는 가족, 또 어떤이는 작업장 동료들, 푸른창공과 그리고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까지 각각 소중한 것은 달랐지만 우리는 오늘 이 과정을 통해 아주 희미하게 느꼈을 것이다.

나와 우리가 예술로 이야기 나누고 행복하게 웃던 이 순간의 소중함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날이 없음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예술적 감성으로 따뜻하게 보낸 이 짧은 시간으로 좀 더 가까워진 나와 우리는 이전과는 아주 조금 달라진 것이다. 누군가가 남긴 글에서도 그 시간들이 주는 의미를 확인할수있었다. '오늘 예술날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여행하는 느낌이었다. 예술작품을 통한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은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마음을 표현해서 좋았습니다', '바쁜일상 속에서 모처럼 소소한 행복과 여유로움, 행복한 하루가 지나가네요', 이처럼 많은 이들이 이 짧은 시간의 경험을 의미있고 행복하게 보냈다고 말한다. 이렇게 일상에 예술이 늘 함께 한다면 하루하루가 특별해지고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예술날개는 특별히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만남, 비장애 예술가들과 장애인들의 만남, 시각과 청각으로 만나는 춤과 소리극, 한 줄기 빛만 남은 예술가의 눈으로 그리는 푸른하늘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의 재즈연주까지 다양한 시도들과 만남들이 이뤄지고 있었다. 장애, 비장애를 넘어 몸과 마음을 넘어 춤, 음악, 미술이라는 장르를 넘어 예술이라는 날개를 달고 서로에게 넘나들고 있다. 예술은 본디 그런 것이다. 마음을 만나는 일이고 마음과 마음이 넘나드는 것이다. 오늘 이런 시도들이 더 자주 더, 많은 이들과 공유되길 바란다.



노래의 날개위에

공연자 : 김제선, 배진아

일 자 : '20. 04. 07.(화)

장 소 : 틱움복지재단(광주 북구 중외길 5)

해당 워크숍은 제빵·제과 직업재활센터 틱움복지재단 소속 직원(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노래를 통해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즐거운 노래 시간! 이번 시간에는 노래 감상도 하고, 함께 노래를 불러보는 예술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성악가이자 팝페라 가수인 김제선 선생님의 노래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은 투우사의 노래예요. 광고 음악에 자주 등장한 노래라고 하네요. 박수로 칭해들어요. 선생님이 오른 손을 들면 다 같이 '올레~'를 외쳐 봐요. '올레~!'

소통의 장을 꽉 채우는 선생님의 웅장한 목소리에 다들 귀를 기울이며 감상해요. 매력적인 목소리에 저절로 박수를 치게 돼요.

다음은 다 같이 후렴을 따라 부를 거예요. 세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후렴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단어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 리듬만 따라하면 돼서 굉장히 쉽답니다.

'얌모 얌모 꾀빠 얌모야 푸니쿨리 푸니쿨라'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계속해서 흥얼거리게 되네요. 노래가 시작되고, 선생님의 율동을 따라하며 후렴을 따라 불러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정말 즐거운 노래 시간이예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던 성악과 팝페라가 선생님 덕분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로 다가오네요.



요즘 트로트 열풍이 한창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벽 없는 노래 장르가 트로트가 아닐까 싶네요. 코로나-19로 행사가 없어 노래에 갈증이 났다던 배진아 선생님의 무대를 박수로 칭해들어요. 배진아 선생님의 첫 곡은 정통 트로트 곡이에요. 아름다운 목소리와 트로트 특유의 창법이 우리의 귀를 감동시켜요. 배진아 선생님은 트로트의 다양한 곡을 소화하세요. 정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신나는 댄스곡, 가요 등 카멜레온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계세요.

성악가와 트로트 가수의 만남은 조금 특별해요. 주로 이런 만남을 콜라보레이션, 퓨전이라고 표현해요. 어디서든 만나기 어려운 두 분의 무대를 함께 들어요. 양손을 살랑살랑 흔들며 노래를 감상하고, 따라 부르기도 해봐요.

마지막 곡은 모두가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신나는 노래, 전국민을 들썩하게 만든 '아모르파티'라는 곡을 준비하셨어요. 흥얼흥얼 노래도 부르고, 신나게 춤도 춰요.

오늘 '예술날개' 경험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 장르들을 배우네요. 어려운 예술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술가가 되어 다양한 예술을 쉽게 접했어요. 예술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함께 즐기고 마음을 공유한 오늘의 경험처럼 모든 활동이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사진으로 보는 배리어프리 전시·체험



의상 · 소품 직접 만져보고 무대를 상상하기



STORY



찾아기는 창작 워크숍 예술날개

사람들 마음의 돋보기를 ‘장애’에만 비추면
‘장애’가 커 보이거든요.

위송(We Song) 밴드

재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누군가의 애환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강상수 재즈피아니스트

어떤 것을 비교하거나 잘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경모 작가

난생처음 택시를 혼자 타보는 설레이는 고등학생의 마음,
뜻대로 되진 않지만 바리스타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청년의 마음.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노래로만들어서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해와달밴드

연극 연습 초기, 연극이라는 낯선 장르가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즐거움이 쌓여갔어요

극단 단비

아이즐이란 아이들의 즐거운 활동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초특급 아이즐 합창단

해당책자에 수록된 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글을 발췌하여 담았습니다.



‘공연으로 만나는 예술날개’는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촬영한 다큐형태 영상을 글(읽는 공연)로 풀어
담았다. 해당 다큐 영상은 약 50분 분량으로 제작되어 장애인의 날(4월 20일)
‘4월, 예술날개’ 행사주간에 광주CMB를 통해 방송 됐다.



특별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예술 콘서트

STORY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공연으로 만나는 예술날개'

읽는 공연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중 지역의 예술가를 소개하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특별하지만 평범한 이들'의 광주 지역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의 결과물을 공연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공연으로 만나는 예술날개'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기간에 걸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상된 공연은 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결과물을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마음에 공연장 무대가 아닌 책속에 담아 '한명 한명을 위한 소중한 공연'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공연은 CMB와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감독 신희홍

나레이션 : 여기 특별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처럼 화려한 겉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기보다 손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각자의 방식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들이 가진 장애는 조금 다른 삶의 모습일 뿐 다른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기 각자의 재능을 가진 광주의 예술가들을 소개합니다.

꽃피는 4월. 지금부터 예술날개가 펼쳐집니다.

1부



2부



공연으로 만나는 예술날개

stage 1

위송(We Song) 밴드

촬영장소 :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STORY

위송(We Song) 밴드 난다난다

작사·작곡 차진환

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Drone(드론) 통해 나만의 꿈을 띄운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Dream 통해 나만의 미래 찾는다
난다난다 푸른 하늘을 향해 난다 날 수 있는 양력 멋진 Drone(드론)이
난다난다 내게 새로운 힘이 난다 할 수 있는 능력 멋진 Dream이

편견 없는 따뜻한 세상이기에 최선 통해 나만의 삶을 갖는다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이기에 취업 통해 나만의 행복 찾는다
난다 난다 푸른 하늘을 향해 난다 날 수 있는 양력 멋진 Drone(드론)이 ye~
난다 난다 내게 새로운 힘이 난다 할 수 있는 능력 멋진 Dream이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멋진 Drone(드론)이 ye~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멋진 Dream이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멋진 Drone(드론)이 ye~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멋진 Dream이



Question 팀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노래하는가가 의미가 크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임을 노래하구요

살아가는 방법이 장애인들은 그저 다를 뿐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멜로디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알

리고 싶어 창작밴드로 모이게 되었고, 음악을 좋아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Question 음악을 하게 된 이유와 의미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음악은 단순히 취미활동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회 참여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소통할지를 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디딤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악기를 다루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는 우리의 바람들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활동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제일 힘든 점은 장애인이라는 세 글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돋보기를 '장애'에만 비추니까 '장애'가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이라는 글자에 집중하다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통분모는 '인'이거든요

음악을 하게 되면 장애인이라는 마음의 돋보기가 '인'에 집중해서 '아, 이 사람도 음악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마음의 돋보기를 갖다 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일 힘든 점은 장애인은 우리와 어울릴 수 없다는 편견들이 조금 있다는 점입니다.

위송(We Song) 밴드 Work Together(함께 일해요)

작사·작곡 차진환

우리 안에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아 만든 노래

없는 존재이기에 연약함을 안고 사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장애는 보이지 않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멋진 사람들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람이 보이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를 뿐이죠 행복한 쉼터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은 같을 뿐이죠 희망찬 일터 속에서

함께 일해요(함께 일해요)
함께 날아요(함께 날아요)
함께 꿈꿔요(꿈꿔요)
더 나은 미래 위해

work 투게더
Fly 투게더
Dreams 투게더
더 나은 미래 위해

차별화된 생각과 진실된 태도로 환영받는 사람 되리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멋진 세상 만들어가리

함께 일해요(함께 일해요)
함께 날아요(함께 날아요)
함께 꿈꿔요(꿈꿔요)
더 나은 미래 위해

work 투게더
Fly 투게더
Dreams 투게더
더 나은 미래 위해

하늘을 날 수

권영으로 만나는 예술작가

위송(We Song) 밴드는?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임을) 노래한다.
우리는 (사랑과 소통이 있는 창작을) 노래한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노래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을 뿐이라고) 노래한다.

우리에게 밴드 음악은 취미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 및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멋진 디딤돌입니다.

장애 그 자체는 이미 내 몸이며 내 자신이고... 이것을 '가지고'사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로 살아가고 있지요. 음악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이라는 단어 속에는 배려와 관심, 재활의 의지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변화는 무섭지 않다. 다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두려울 뿐'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음악이 크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개개인을 하나로 모아 변화를 시작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기를...

모든 장애인이 과분한 꿈을 가져도 좋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노래해요. We 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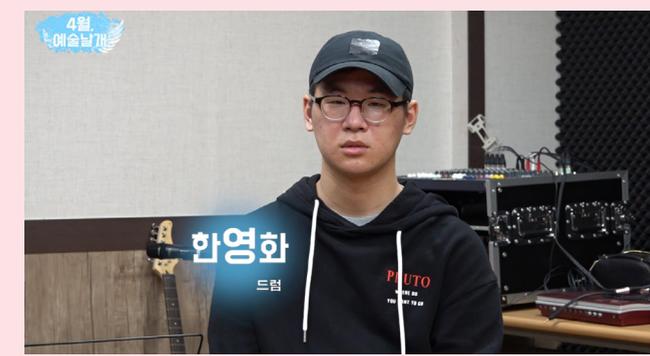
차진환(베이스)

저는 제 이름의 삼행시(차별화된 생각과/ 진실이 담긴 태도로/ 환영받는 사람이 되자)처럼 자작곡을 통해 나를 표현합니다. 생각을 쓴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 정리하는 것 외에 완전한 하나의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창작스튜디오에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안(보컬 · 건반)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제가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악기들도, 모두 제 삶에 힐링이 되고 제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마음으로 늘 원하고만 있었는데 저의 바람을 이곳 창작스튜디오에서 이루게 해줘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하는 점을 살리는 멋진 We Song 밴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한영화(드럼)

드럼을 잘 치진 못 하지만 저도 밴드의 일원이 되어 함께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었습니다. 저의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더듬더듬 연주해 보기 시작했는데 함께 연주하면서 저의 실력이 성장하고 더 많이 배우는 걸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을 드리기자 시작했는데 오히려 목표가 없는 저에게 방향과 목표가 생긴 같습니다. 드럼을 제대로 배워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싶습니다.

stage 2

재즈 피아니스트 강상수

촬영장소 : 개인 연습실



STORY

강상수의 첫 번째 연주곡

Speechless (원곡: Naomi Scott) 알라딘OST



안녕하세요. 저는 '빅히트 문화예술심리협동조합' 이사와 '스카이브릿지 재즈밴드' 대표를 맡고 있고,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재즈 피아니스트 강상수입니다.

Question '나의 하루' 앨범 소개

알라딘 OST 중에 Speechless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곡이 한국에서는 '침묵하지 않아'라는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화 안에서)이 곡이 침묵해야만 하는 상황에 저항하며 불러졌던 노래예요. 그 곡을 제가 연주곡으로 편곡해서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Question 음악을 시작한 계기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바로 교육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렸을 적에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시기 위해 여러 카세트테이프를 사주셨어요. 카세트를 들으면서 음악을 친숙하게 접하게 되었구요. 또 시골에서 또래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작은 키보드를 마련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밭에 일가셨을 때 키보드를 치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면 어머니가 밭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들을 때 예쁘게 들릴 수 있게, 아름답게 들으실 수 있게, 어떻게 하면 그런 음악을 할 수 있을까'하는 어린 마음에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상수의 두 번째 연주곡

Humoresque(원곡: Dvorak)

Question 재즈음악을 하는 이유?

흑인 인권운동에 자신의 음악을 사용했던 재즈 뮤지션 듀크 엘링턴이라는 뮤지션처럼 저도 저처럼 사회에서 소수자로 규정되어져 버린 사람들을 위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앞으로의 목표

저는 연주자이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강상수는

사람을 살리는 재즈를 연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강상수는 그 꿈을 이루어 가는 데 음악만 알아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빅히트문화예술심리협동조합(이사장 박현일) 이사와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이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광주세광학교에서 마치고 나사렛대학교 음악목회학과를 거쳐 버클리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한 수재이기도 합니다.

재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누군가의

애환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고부터, 재즈를 배우고 연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여름, FINA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념 재즈 콘서트를 10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많은 광주 시민과 타지역 방문객, 그리고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그는 올해에도 제가 대표로 있는 스카이브릿지 재즈 밴드와 함께 시민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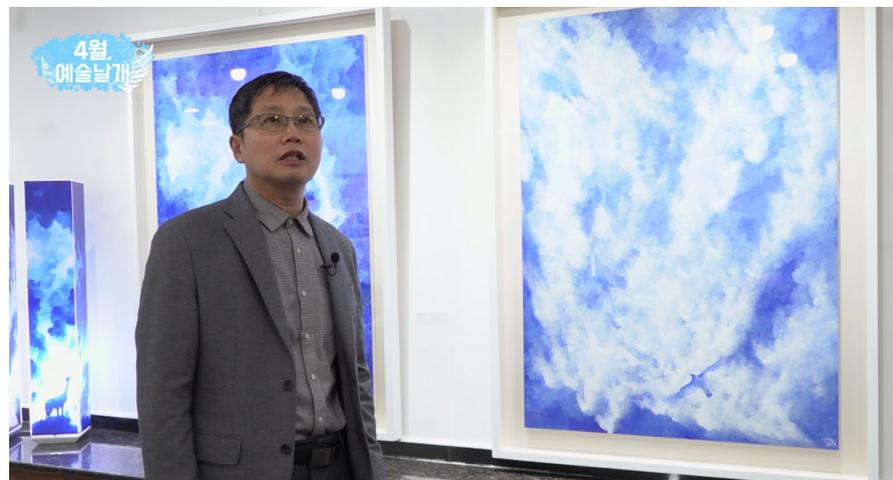
권영호 만나는 예술날개



stage 3

하늘·빛·구름 양경모작가

촬영장소 :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저는 호남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양경모라고 합니다. 시각 장애가 있구요. 최근에는 하늘, 빛 구름을 테마로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어떤 계기로 미술을 시작했나요?

그림은 어렸을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스케치 등을 즐겨했는데, 이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고, 고등학교 미술부 활동을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대를 가고 자연스럽게 작가로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Question 장애 때문에 불편한 점?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러 불편한 현상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안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즐겁고,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uestion 장애가 창작에 방해가 되나요?

많은 고민을 했었죠. 화가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갈등은 늘 갖고 있고 컸던 것 같아요. 수술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거나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보려고 노력하고, 더 잘 그리려는 집착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수술 후 큰 위기를 가진 후부터는 내가 장애라는 것 때문에 눈이 많이 악화되고 좋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한 것이죠. 그 후부터는 어떤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보이는만큼, 내가 잘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려야 겠다. 어떤 것을 비교하거나 잘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중 '구름'작업이 가장 기법적으로나 보여지는 현상보다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느낌이나 감동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Question 작품소개

(하늘 그림) 제 작품의 주된 소재인 하늘, 구름, 빛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구름과 빛은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빛은 구름 뒤에 가리워져 있지만 구름이 지나면서 빛을 발하는... 생명의 역동감이랄까요. ..구름은 빛과 어우러져,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원할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의 빛과 구름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작품 속의 하늘을 날고 있는 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끝없이 날고 싶고 욕망과, 목적을 위해 나아가고 자유롭고 싶어지는 대상이죠. 작품 <하늘·빛·구름>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갈망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Question 앞으로의 활동

광주문화재단 예술날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올해는 광주5·18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너무나 의미가 있죠. 많은 작가들이 여기저기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을 주먹밥을 소재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8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주먹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주시민을 하나로 묶고 사랑하고 나누고,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 주먹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먹밥 안에 광주의 아픔과 사랑과 상처를 담아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경모 작가는

1989년 대학 졸업 후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중 고도근 시로 인해 두 눈에 망막박리와 눈의 굴절 등 여러 가지 현상 등이 발생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었죠. 하지만 포기도 망설임도 없이 전업 작가로 활동은 계속하여, 네 번의 개인전과 단체전, 초대전 등 수십차례 전시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캘리그래피와 페인팅을 접목한 작업과 하늘, 빛, 구름이란 모티브를 가지고 창조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를 직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에겐 더욱더...그래서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생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제가 창작스튜디오를 지원하고 머물게 된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stage 4

해와달밴드 '나의 하루'

촬영장소 : 평화프라자 연습실



김민국(퍼커션)

- 안녕하세요. 해와달 밴드에서 퍼커션을 잘 치는 김민국이고 나이는 스물여섯살이에요

주은아(건반·신디사이저)

- 안녕하세요. 저는 해와달밴드에서 신디를 연주하는 주은아입니다. 나이는 스물여섯살입니다. 나의 하루는 까만콩(카페)에 가면 봄날엔 따뜻한 바닐라라떼를 천천히 먹고, 여름엔 차가운 바닐라라떼를 먹고 배탈이 안 나면 다행입니다.

허승(보컬)

- 반갑습니다. 해와달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허승입니다.

윤준희(드럼)

- 최근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연주를 함께 해서 떨립니다. 합주실에서 노래랑 연주랑 하면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변한 듯한 모습입니다.

밴드 해와달밴드의 첫 번째 노래 나의 하루

해와달밴드 '첫'번째 미니앨범
<맨 처음 고백>수록곡 (2019년도 발매)

장르 : 재즈

작사 류진주 / 작·편곡 이애실
보컬 허승 / feat 주은아



늦은 잠에 무거운 두 눈 비비고
오늘도 버스에 올라 (출근했어요)

느릿느릿 해바라기 시계가
게으름을 부리네요

창밖에 부는 바람이
나를 불러요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나도 이제 20대
어엿한 숙녀

혼자 다니고 싶어요
봄바람이 보내준

햇살이 좋아요
나풀나풀 길을 걷다

카페에 들어가
(바닐라라떼 주세요)

달디 단 바닐라 향에 흠뻑 취해
오늘은 혼자 걷는 길

해가 그린 그림자가 따라와
나와 함께 걷고 있네
달콤한 바닐라
향기가 나는 좋아요

나는 아직도 하고픈 말
너무 많아요

이 노래로 내 마음
전해질까요

함께 있고 싶어요
엄마 아빠 해와달밴드

친구야 나 어때
하얀 천사 같지 않니

오늘은 말할래
날개 달린 천사라고

라랄라 라랄라 스르르름 두비두바
라랄라 라랄라 스르르름 두비두바

어느새 그림자와 단둘이 걷어가는
오늘이 참 좋아요



해와달밴드 두 번째 노래

아차아뜨

해와달밴드 '첫'번째 미니앨범
〈맨 처음 고백〉수록곡 (2019년도 발매)

장르 : 재즈

작사 류진주 / 작편곡 이애실
보컬 허승 / feat 김민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
아직은 혼자 맞이할 수 없어
나는 지금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 드릴까요?
수십 번 연습해도 말끝은
올라가지 않아
아메리카노 차갑게는 아차
아메리카노 뜨겁게는 아뜨
기다리는 내 생각과 다르게
손님은 아이스요
내가 물어보고 내가 말해버리고
내가 생각한대로 답하길 기다리네
내 마음은 내 결정은 세상과 같지 않네
커피색 앞치마에 올라온 이름표
내 이름 세 글자 김민국
커피잔 위로 비친 나의 마음이
들킬까봐 또 웃어본다

차갑게 굳어버린 차가운 얼음 담고
뜨거운 커피를 내린다 내 맘도 뜨겁게 내린다
커피색 앞치마에 올라온 이름표
내 이름 세 글자 김민국
커피잔 위로 비친 나의 마음이
들킬까봐 또 웃어본다
아메리카노 차갑게는 아차
아메리카노 뜨겁게는 아뜨
기다리는 내 생각과 다르게
손님은 아이스요
내가 물어보고 내가 말해버리고
내가 생각한대로 답하길 기다리네
내 마음은 내 결정은 세상과 같지 않네

행복한 바리스타 꿈꾸는 바리스타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일 뿐이야
괜찮을거야 더 잘할거야 다시 한 번 바리스타



Question '나의 하루' 앨범 소개

노래가 된 '나의 하루'는 말 그대로 내가 일상에서 겪었던 일이 그대로 가사에 옮겨져서 노래로 여러분께 들려주는 그런 컨셉의 앨범이구요, 실제로 카페에서 혼자 바닐라라떼를 주문해서 먹는 20대 소녀의 모습, 난생처음 택시를 혼자 타보는 설레이는 고등학생의 마음, 뜻대로 되진 않지만 바리스타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청년의 마음.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Question 앞으로의 목표

저희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을 꾸준히 발표할 생각이어서 올해 계획으로는 창작곡을 서너곡 작업해서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 장기적으로는 우리 노래로 세계 곳곳 공연을 찾아다니며 많은 분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해와달밴드, 화이팅!!!

해와달밴드는?

2010년도에 결성된 해와달 밴드는 발달장애 3명과 시각장애 1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밴드입니다. 재즈와 어쿠스틱을 기반으로 광주전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50여 차례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대회 수상 및 방송출연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분이 있던 멤버들이구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대신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장애인으로서의 어쩌면 대학 입학보다도 어려운 전문음악밴드의 길을 시작하였고, 걸어왔습니다.
2020년도 전국 규모의 페스티벌 참가를 비롯해 다양한 무대에서 대중들과 소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창작곡 2-3곡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밴드'라는 키워드보다 '해와달밴드 음악'이 부각되었으면 합니다.

stage 5

유쾌한 연극 극단 단비

촬영장소 : 각화문화의집

INTERVIEW

양정인(극단단비 감독·연출) :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단비의 지도강사와 연출을 맡은 양정인입니다. 이 작품은 '엄마를 구하라'라는 작품이구요. 원작은 '해와달이 된 오누이'라는 작품입니다. 엄마가 납치를 당한 것으로 설정을 했어요. 납치된 엄마를 구하러 오누이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구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엄마를 구하라' 라는 작품이구요



출연

엄마역 : 조진선	가래떡역 : 정윤균
딸역 : 최송현	내비게이션역 황석영
아들역 : 고현석	귀신역 1 김순례
호랑이역 : 김성득	귀신역 2 김은미
꿀떡역 : 임제민	아나운서역 : 김현아
참쌀떡역 : 김봉건	

첫번째 연극 엄마를 구하라

양정인(극단단비 감독·연출)



<집>

엄마역(조진선) : 엄마 일하러 갔다 올테니 동생 잘 돌보고 있어라

아들역(고현석) :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딸역(최송현) : 엄마 오실 때 맛있는 떡 가지고 오세요

엄마 : 그래. 밖은 무서운 게 많으니 문단속 잘하고..

아들&딸 : 엄마 갔다. (게임기를 집어들어 실행하면서) 앓사~

엄마 : (갑작기 나타 나서) 이것들이 게임만 해?

아들&딸 : (놀라 게임기를 떨어트리면서) 앓, 깜짝이야 (무릎꿇으면서) 왜 엄마는 우리가 게임할 때 오냐고?

엄마 : 어서 들어가 공부해(뒤돌아서며) 내가 못살아

딸 : (방으로 들어가면서) 으이구 참, 왜 공부를 하는 건지...

다같이 퇴장

<엄마일터>

엄마 : (일을 마치며) 어휴 힘들다. 우리 아이들 잘 있겠지? 빨리 가서 맛있는 떡 줘야지.. (손뼉치며) 떡들아~~

가래떡역(정윤균) : (등장하면서) 가래 가래 가래떡

참쌀떡역(김봉건) : (등장하면서) 참쌀 참쌀 참쌀떡

꿀떡역(임제민) : (강충강충 뛰어 등장하면서) 꿀떡

엄마 : 자, 빨리 가자

엄마와 떡들 길을 가다 호랑이를 만나다

호랑이역(김성득) : 어휴,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엄마 : 잠깐. 떡들이랑 회의 좀 할께요

호랑이 : 1분(즐게)

엄마&떡들 : 쓱쓱쓱, 쓱쓱쓱



권영호 만나는 예술놀이

꿀떡 : 난 안가. (가래떡을 호랑이에게 밀며) 니가 가라 가래떡
호랑이 : 배부르게 생겼다 너 이리와!

엄마 : 잠깐! 떡들과 작별할 시간을 주세요

호랑이 : 좋아, 1분(줄게)

엄마&떡들 : (쑹덕쑹덕거리다 도망가면서) 뛰자!

얼마 못가 호랑이에게 잡히고 호랑이는 떡을 하나씩 모두 먹어버린다

호랑이 : (쓰러진 엄마에게) 떡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엄마 : 니가 다 먹어잖아, 떡들아 떡들아 내 떡들아~

호랑이 : 그러면 이젠 너를 자아가야겠다 (엄마를 잡아끌며) 이리와!

<집>
아들과 딸은 여전히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딸: 오빠, 배고파

아들 : 잠깐만

딸: 엄마 언제와?

아들 : 잠깐만

딸 :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다 오빠의 게임기를 낚아 던지면서) 오빠, 배고프다고!

아들 : 이럴땐 먹방이 최고지!(TV를 켜다)

TV속 기자역(김현아) : (뉴스 시그널이 끝나고)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깊은 숲속에 위치한 까막단이라는 산적패가 엄마들을 납치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지'산적패로, 숲속을 혼자 걷는 여자들의 먹을거리를 모두 빼앗고, 결국 납치까지 하는 파렴치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니네 엄마도 잡혀갔거든~~! 이상, 긴급속보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그널음과 함께 퇴장)

딸 : 엄마~

아들 : 엄마를 구하자



딸 : 까막단이 어딘지 모르는데?

아들 : 네이게이션~~

네이게이션 역(황석영) :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안내를 시작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으아악~) 30(끼이익), 30(끼이익) 과속 방지턱입니다(덜컹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어? 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어? 어?)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퇴장)

딸 : 경로를 이탈했는데 도착했어, 오빠

아들 : 빨리 가자

<귀신의 집>

귀신1역(김순례)& 귀신2역(김은미) 등장하고 이어 남매 등장

딸 : 오빠, 여긴 어디야?

아들 : 귀신의 집

딸 : 오빠, 무서워

아들 : 빨리 가자

귀신1 : (남매를 위협하며) 내다리 내놔~ 내다리 내놔~ 내다리~

딸 : 아~ 싫어(도망간다)

<곰과 괴수의 집>

곰과 괴수 등장

딸 : (곰을 만지며)아 귀여워~
곰과 괴수 비명과 함께 도망

아들&딸 : 와~ 이겼다

(그때 호랑이가나타나면서)

호랑이 :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들: 네가 어제 엄마를 잡아갔구나? 가만 두지 않겠다.

아들과 호랑이의 대결이 시작되고,
오빠 호랑이에게 한방 맞고 쓰러진다.

호랑이: (손을 털며)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것들이

딸이 갑자기 호랑이의 눈을 공격하고, 호랑이는 그대로 쓰러진다

호랑이: 기습공격을 당하다니... (큰 목소리로) 두목님~~!

가면을 쓰고 총을 든 두목 등장

두목: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가만두지 않겠다.

딸:(무릅꿇고 빌면서) 하느님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앞으로 게임도 안하고 먹방도 안 볼게요. 최종보스가 떡이 되게 해주세요

아들: (무릅꿇고 빌면서) 하느님. 게임도 안하고 먹방도 안보고 동생도 잘 보는 오빠가 될 테니까 최종 보스가 떡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괴수 갑자기 꿀떡으로 변해 뛰어가면서 퇴장

아들&딸 : 와 이겼다

엄마 : 애들아~

아들&딸 : 엄마~~

엄마 : 잠깐, 아이들! 엄마가 맛있는 떡 만들어 줄게
아들&딸 : 엄마, 최고!

모든 등장배우들 '아모르파티'에 맞춰 등장하면서 춤추면서 오누이 '엄마를 구하라'. 끝~~"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극단 단비' 공연! 또 보러 오세요~”



조진선(극단 단비 단원) - '엄마를 구하라' 엄마역-

INTERVIEW

Question 연극활동,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엄마역을 맡은 조진선입니다. 하다 보니까 재밌어지고, 선생님들이랑 함께해서 즐겁습니다. 오빠역이었던 사람(고현석)은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요, 송현(딸역)이는 처음 연습했을 때부터 만나서 정이 든 것 같아요

Question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연출해주신) 양정인 선생님한테 항상 고맙고, 지도해주고 고생해 주셨는데 매우 고마워요

극단 단비는?

“연극 연습 초기, 연극이라는 낯선 장르가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즐거움이 쌓여갔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 가슴을 적시는 단비 처럼 누구나에게 촉촉이 스며들어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결성됐다는 극단 ‘단비’.

극단 단비는 2019년도 광주 북구 평생학습 무릎학교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였고, 첫 작품으로 '해와달밴디 된 오누이'를 시연했다. 결과발표 후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연극을 마치고 느낀 성취감은 장애인 친구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2020년에는 '방귀머느리'라는 작품을 가지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의 통합연극단을 본격화하여 광주지역 내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깨알 같은 해학을 통해 웃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포부도 세웠다.

특히, 첫 작품으로 '엄마를 구하라'를 시연했다.

극단 단비 단원 : 고현석, 황석영, 조진선, 김봉건, 김현아, 김은미, 김순례, 임제민, 정윤균, 최송현, 김성득.

(담당 : 배선영)

stage 6

감동의 하모니 초특급 아이즐 합창단



#1. 초특급 아이즐 합창단의 첫 번째 곡
기차를 타고
김옥순 작사/김태호 작곡
박병국 지휘

초등 특수학급
아이들의 즐거운 합창단~

STORY



이은점(초특급 아이즐 합창단 교사, 광주 봉주초 특수교사)

INTERVIEW

초특급 아이즐이란 합창단 이름이 길기도 하고 어떤 분들께서는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름을 고민할 때, 합창단의 색깔을 넣을 수 있는 이름으로 하자고 고민했었요. 초특급의 의미는 초등 특수 학급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의미하고요, 아이즐이란 아이들의 즐거운 활동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아이들이 장애라는 제한점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 안도 마찬가지로 학교 밖을 넘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시작되었죠.



권영으로 만나는 예술날개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보자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처음 만나 옆 사람도 정다운 이웃



즐거움을 가득 안고 달려가보자



즐거움을 가득 안고 달려가보자



즐거움을 가득 안고 달려가보자

기차를 타고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보자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푸른 산을 지날 땐 산새를 찾고

넓은 바다 지날 때엔 물새와 놀고

설렘을 가득 안고 달려가보자

새로운 세상이 자꾸자꾸 보인다

(간주)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보자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처음 만난 옆 사람도 정다운 이웃

즐거움을 가득 안고 달려가보자

아름다운 세상이 자꾸자꾸 보인다

즐거움을 가득 안고 달려가보자

아름다운 세상이 자꾸자꾸 보인다

INTERVIEW

Question 왜 합창단에 가입했나요?

윤성순(초특급 아이즐 한예림 합창단원 엄마) : 예림이가 다니는 은빛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평소에 예림이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도 잘 부른다고 합창을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추천해 주셨어요

한예림(초특급 아이즐 단원) : 친구들과 노래 불러서 재밌어요



한예림(초특급 아이즐 합창단 단원), 윤성순(한예림 단원 엄마)

윤성순(초특급 아이즐 한예림 합창단원 엄마) : 예림아, 우리 예림이는 항상 엄마가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예림이인거 잘 알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엄마랑 씩씩하게,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나레이션 : 2020년 4월, 활짝 펼쳐진 예술날개가 우리의 마음까지 감싸 안았습니다. 특별하지만 평범한 예술가들의 따뜻한 날개짓은 이곳 광주에서 계속됩니다.

#2. 초특급 아이즐 합창단·광주 봉주초등학교 두 번째 곡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수영 작사 / 김미은 작곡 / 박병국 지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수영 작사 / 김미은 작곡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언제나 그곳에 나를 안겨주는
아주 커다란 나무하나
시원한 그늘도 동그란 열매도



모두 나에게 주었어요
주룩룩 소낙비
겨울바람이 불어도



따가운 햇살이 내려도
두 팔로 하늘 만들어
변함없는 푸른 세상을



주었어요
아낌없이 모두 주는
엄마 아빠 닮은 나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제는 내가
꼭 안아주고 지켜줄게요





펴낸 곳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펴낸 이 김윤기
 발행 처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전 화 062-670-7400
 팩 스 062-670-7440
 기 획 단 신희홍, 양정인, 이순학, 김주완
 담 당 광규호, 이종수, 박수현, 강나은

만 든 곳 주식회사 좋은피알 착한기업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13, 4F
 전 화 062-945-5670
 팩 스 062-443-5670
 메 일 c5080@hanmail.net

발 간 일 자 2020년 4월

본 책자에 기재된 모든 원고 및 사진은 '광주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도용 불가합니다.
 광주문화재단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